복지선교회 소망의샘터

2020겨울호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람들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

CONTENTS

03 감사인사 / 대표회장 최희용

04 코로나19 다함께 사랑으로 이겨내요.

05 사랑밖엔 없습니다. / 오상근 원장

06 힘내라 대한민국!

07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등을 돕기 위한 대국민 기부 참여 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에 참여

08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독거노인 돌보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면서 공원등의 폐쇄로 집콕 생활로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상대 조차 없이 외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살펴드렸습니다.

10 취업을 위해 떠나는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 출소자 시설

11 우리 함께 극복해요 / 사랑의집에덴의 일상

12 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수지맘 김지혜

13 독거노인 가정에 드릴 김장하던 날 / 류혜원

14 기관별 약도

15 후원안내 및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대표회장 / 최 희 용

안녕하세요. 소망의샘터 대표회장 최희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흔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진동하는 시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흔들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좋고 아름다운 것 들을 굳게 다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부정적으로는 그동안 힘들게 가꾸고 세워놓은 아름다운 질서의 무너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위기를 선용하여 좋은 것은 더욱더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사정없이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의 이데올로기(Ideologie)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냉전시대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 마디로 국제적, 국내적으로 정치적 상황이든, 경제적인 형편이든, 아직도 좌우의 이념,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 속에 비상이 걸린 시국입니다.
더하여,년 초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밖의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뉴스가 아침저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인격으로서,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마음 놓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이웃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모두 언택트(Untact)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언택트란, 비접촉시대라는 의미로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지구촌을 마비시킴으로 그간 대면접촉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영역에 생소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란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 'Contact'에 부정적 의미를 담은접두사 'Un-'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위정자로 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서(周書)에 보면, 등장하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4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위기를 맞이할 때 잘못된 것 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당 나라 태조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안정시켜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렵게 했다(太祖 扶危定傾 威權震主)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제 늦은 가을, 모든 나뭇잎들이 유록(乳綠)으로 시작하여 초록(草綠)과 신록(新綠)을 지나 황록(黃綠)에서 암록(暗綠)으로 변해버린 만추(晩秋)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백신이 전 세계 인구에게 보급되어 모든 분야가 새롭게 회복되고 광명을 찾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어려움속에서도 협력해주시고 굳굳이 지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랑으로 다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사랑으로 이겨낼수 있다고 하시는 근육병환우시설 오상근 원장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을 송두리채 빼앗겼지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기다리다 지친 주인공은 택시에서 내려 지하도로 내려 가는 긴 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려간 곳은 그녀가 생각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달이 떠 있고 지금껏 살던 세상과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키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작가는 문제 많은 우리들의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올 한 해를 집어 삼키고 모든 일상도,일도,인간관계도 위축된 해 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에 살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상이 달라져서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형제자매들과 또 그들과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타인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지체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독거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가 없어 동네친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나누며 살아가야하는데..,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에만 있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외롭고 아프고..,
식사해결 또한 어려워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계신 노인들에겐 생과 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설 1Q84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망을 가진다면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다 하여도, 좋은 곳에 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신 훌륭한 모든 후원자님들 2020년 한해 마무리를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마무리를 해주시길 소망하며 지금 보다 훨씬 나은 2021년이 되시길 근육병환우시설 모든식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환우시설 오상근 원장 올림

원장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감염에 취약한 식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등을 돕기 위한 대국민 기부 참여 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산2동 정대균 동장님은 기탁의사에 감사 인사차 사무실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 "는
말씀을 덧 붙이고 회장님을 비롯 실무자들과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2019년 발생, 2020년 들어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펜데믹 현상을 일으켜 원격근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새로운 사회문화와 함께, 전통적 의료제도와 사회복지, 가족개념에 대한 의미를 이끌어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생활은 많은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30%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상실감 등 부정적 감정 및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외출과 여행등 사회적활동이 자제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다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로인해 코로나바이러스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지침 중 몇가지

첫째.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것 인정하기

나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둘째.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매일같이 코로나19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선별된 정보를 찾아 보는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집에서 생활하다보면 생체리듬이 깨지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일상의 리듬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넷째. 가벼운 야외활동하기

사람이 많지 않은곳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전화나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집에만 머무르다보면 소외감을 느끼기 쉬움으로 전화, sns를 통해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저희 소망의샘터는 10.23일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틈새 없는 가정 나눔결연사업" 성금으로 72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부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성금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희용 대표회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망의샘터는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2017년도부터 기부한 성금 누적액은 총 2,856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계산2동 정대균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였으며 . 따뜻한 마음으로 기탁한 소중한 성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계산2동의 어려운 가정 20세대에 월 3만 원씩 1년간 후원될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응원합니다!

2020년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19!!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면서 공원등의 폐쇄로 집콕 생활로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상대조차 없이 외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셔야 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환우들 또한 외부 방문객이 없이 홀로서기에 매진해야 했고,
봉사자들은 시설에 갈 엄두도 못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시회의 소외계층은 더욱 힘겨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활동조차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고, 바이러스의 위력은 더욱 더 강해 질 것이랍니다.

코로나19의 핑계로 시설 및 독거노인들 돌보기엔 많은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한분도 확진자 없이 잘 지내 주셔서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요즘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01

02

03

04

01/02 어버이날 갈비탕과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고 가슴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03/04 삼복더위 땐 삼계탕으로 건강을 챙겨 드렸습니다.

독거노인 돌보기

02

01

03

05

06

04

01/02 더위에 건강은 괜찮으신지 안부도 여쭙고 수박도 나눠 드리고자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03/04 추석명절 큰 선물은 못해도 늘 하던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허전한 마음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05/06 김치만 있으면 1년 거뜬히 살 수 있다는 노인들에게 넉넉한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함께극복해요.

출소자 시설

취업을 위해 떠나는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삭지않은 코로나19..,전국적으로 쏟아 부었던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모두다 야외활동은 물론 외부인들의 방문 조차 두려움에 마음조이며 살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올여름 찜통 더위에도 숨이 턱까지 차 올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3 소망의샘터 형제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 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늘어 나는 식구들을 위해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다독거리는 형제들의 형제애를 보면서 가슴이 뜨러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가운데 외부인사 접촉를 금하며 대문을 굳게 잠갔지만,이들 형제들에게는 대문 빗장을 개방하며 불안과 초조 속에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교도소,구치소,법무복지공단에서 출소 후 오갈데가 없는 형제들을 받아주며 큰 모험을 했던 지난 7~8월이 지금 생각 해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과 아무런 불평없이 함께 한 우리 형제들에게 고맙고 잘 따라줘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청송1, 의정부2, 남부1명 등 4명이 제3 소망의샘터에서 생활하며 식구가 늘어 사람이 사는집 같이 확자지껄 화기애애한 생활로 붐볐습니다.
모두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형제들로 20세부터 62세까지 나이를 가졌으며,
우리는 이들에게 가족애를 심어 주며 관심과 사랑을 듬뿍 나누며 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생활을 같이하며 부업의 현장에서 인내와 끈기를 관찰하며 직업적응 훈련 속에 2명은 7월20일, 1명은 8월13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과거 자신이 이루지 못한 희망과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마음고생 많았던 지난날을 보상 받았으니 보람또한 컸습니다.
항상 제3소망의샘터를 응원 해 주시고 관심과 후원 해 주시는 소망의 샘터 가족분들 따스함 속에 이들은 새로운 빛을 받아 새삶을 찾으며 살아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쉽게도 남부에서 온 형제는 온다간다 말 없이 우리 집을 떠나, 코로나19로 알바도 어려운 현실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혹시 재범으로 다시 수감되었는지...가족도 없는 형제인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로 내일이 불투명하지만 소망의샘터 가족과 모든 후원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부디 2021년 모두에게 기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소자 시설 최옥숙 원장-

우리함께극복해요.

장애우 시설

오세현 아산시장님께서 사랑의집에덴 방문하셨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세현 아산시장님께서 장애우 시설인 사랑의집 에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정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가을에 활짝핀 해바라기 같은 웃음과 따뜻하고 귀한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앞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 반영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땡볕더위도 지나가듯이 코로나19도 그리그리 지나기를 바라면서 아산시와 그리고 사랑의집 에덴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랑수를 실고 오셨어요.^^

코로나19로 모든게 부족하고 필요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가지 식품들과 생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집에덴 식구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돌아가 자주 뵙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둔포 면사무소에서 다녀가셨어요.^^

코로나19로 힘겨운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아산시 둔포면사무소에서 쌀과 라면 등 사랑의집에덴 식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행복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리고 뜻깊은 선물로 식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양3동 새마을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온양3동 새마을에서 김치와 잡곡을 가지고 방문 하셨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생활을 하시고 계실텐데..,
겨울내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두에게 녹녹치 않았던 2020년 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엔 수고하신 모든분들에게 희망적인 일들로 위로받고 보상받기를 기원합니다.

둔포 면사무소

온양3동 새마을

수자원공사

안녕하세요. 지난번 송편만들기를 같이 했던 수지맘입니다.^^
소망의샘터 봉사자 선생님들과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던게 벌써 10년 전 일... 세월 참 빠르네요.^
그 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아산 사랑의 집에서 운동회를 함께 했었지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 예쁜 딸도 생기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소망의 샘터 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올리신 사진을 봐 왔습니다.
봉사자 선생님들께서는 그 긴 세월이 지난 동안에도 여러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감동~^^
그러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 송편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작년과는 사뭇 다른 추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을 위해 송편을 만들고 봉사자 선생님들과 오랫만에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숙하긴 하지만 제가 만든 송편을 드시고 기뻐하실 분들을 생각하니 몇 시간의 노동은 하나도 힘든것이 아니였습니다.
올해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한해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소망의샘터 봉사자 분들 처럼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 해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활동 부탁드리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래요.~.^

수지맘 김지혜

독거노인 가정에 드릴 김장 하던 날!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라 파고드는 찬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김장하던 날은 봄인지 겨울인지...다행히 따뜻했습니다.
배추 200포기,무,쪽파,갓,대파,생새우,젓갈,마늘,생강,양념 등등..,
와~ 그야말로 할 일이 산더미..
배추는 물 빠지게 건져두고 갓이랑 파는 알맞은 길이로 썰어두고 무는 채칼로 팔이 빠지도록 밀었어요.
산더미처럼 수북한 무채에 고춧가루랑 갖은 양념넣고 빨갛게 양념이 베일때 까지 골고루 섞고 다시 야채넣고 또 섞고....허리가 휘어질때 쯤 김장속이 완성 되었지요.
안그래도 힘든데 코로나때문에 마스크까지 썼더니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얼굴은 땀범벅...휴~힘들어...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어르신들께 방문한다고 연락드리면 시간약속을 해도 아침부터 기다리시기에 서둘러서 배추속을 채웠습니다.
차에 가득 김치 싣고 어르신들 댁으로 가는길이 힘들다는 생각보단 가슴이 뿌듯해 졌습니다.
우리 샘터가족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오신 어르신들은 해마다 김장을 받으셨지만 올초 새로 가족이 되신 몇분의 어르신들은 처음 받아보는 김장상자에 깜짝 놀라시네요.
이렇게 직접 담궈서 가지고 올줄은 몰랐다하시며 “고마워요~고마워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할머님~

무거운걸들고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어쩌나~"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미안한 기색으로 어쩔줄 몰라하셨던 할아버님~
참이웃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온몸이 아프고 숨이 차도록 뛰었던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봉사자 류혜원

소망의샘터 각 시설 위치를 소개합니다.

제1기관/(장애우시설)사랑의집에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840번길 88-49

제2기관/(출소자 및 부랑아시설)파주소망의샘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579법원읍 사임당로 579

제3기관/(근육병환우시설)참조은친구

인천시 서구 고래울로38번길 4-16 (해동빌라) 102호

TEL:(032)541-4737 / FAX(032)541-4738

1. 사/랑/의/손/길을 기다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조차 버려진 장애우들은 시설의 원장님, 사모님과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전부인 장애우 아이들과,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 노후를 많이 힘겹고 외롭게 보내시는 할머님과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범을 되풀이 하는 출소자들과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재범을 막아내려 애쓰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지병으로 사는게 고통인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2. 소/망/의/샘/터 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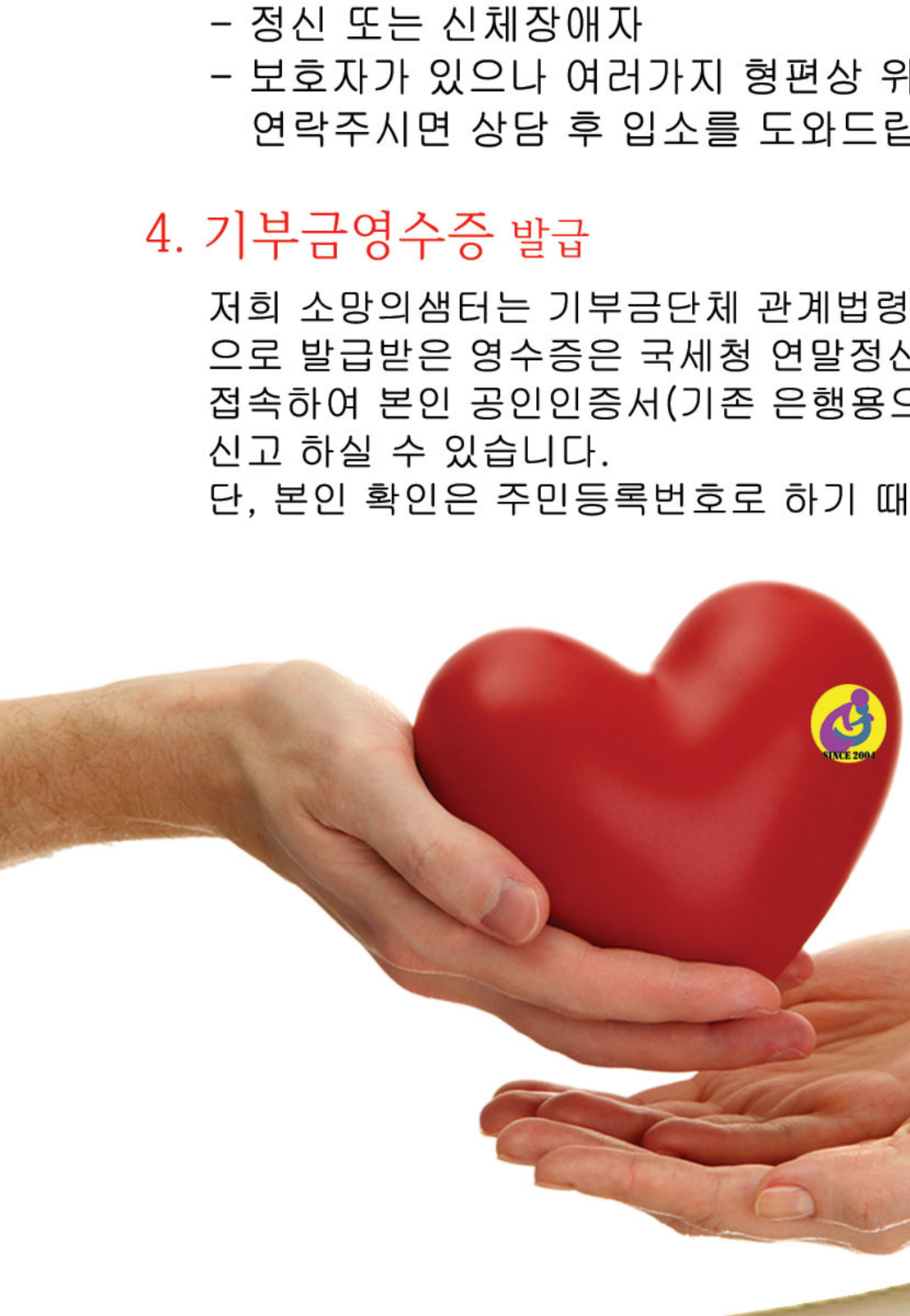
- 소망의샘터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소망의샘터에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의 10%내에선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ever.or,kr)을 통해 소망의샘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 무의탁 노인
-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
- 보호자가 있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위탁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032)541-473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입소를 도와드립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저희 소망의샘터는 기부금단체 관계법령 법령 39 ① 1 마(기부금코드 41)에의거 지정기부금 발급기관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기존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음)로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모두가 행복한 세상
소망의샘터에서 만들어갑니다.

후원문의 : (032)541-4737

http://www.ever.or.kr/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일 입니다.

후 / 원 / 계 / 좌

국민 : 656501-01-250453

농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aum 또는 NAVER, ZUM 등 포털사이트 에서 소망의샘터 를 검색하세요.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